

2015년은 (주)오픈베이스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95년 1세대 IT 기업으로 출범 후 국내 최초로 인터넷 트래픽 매니지먼트 사업을 시작한(주) 오픈베이스는 지난 20년간 ADC 및 네트워크 분야 리더 기업의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더불어 차세대 방화벽, 웹 게이트웨이 등 탁월한 보안 솔루션까지 갖춤으로써 네트워크와 보안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는 중이다. 2012년 자체 기술로 ADCsmart를 출시하며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단순 유통기업에서 솔루션 벤더업체로 발돋움한 (주)오픈베이스는 자사의 기술을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TTA의 자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다.

오픈베이스, ADC 통합관리 솔루션의 새로운 장을 열다*

TTA와 함께 한 클라우드 기술 분석

TTA 표준화본부 표준확산부



* 본 사례집은 “TTA 홈페이지-자료마당-TTA 간행물-표준해설서/기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DCsmart는 2014년 GS(Good Software) 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으며 우수성을 입증했다. (주)오픈베이스는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도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시장과 정부 양측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자타공인 ADC 리더 기업이다. (주)오픈베이스는 IT 인프라 솔루션 1위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네트워크와 보안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며 끝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주)오픈베이스의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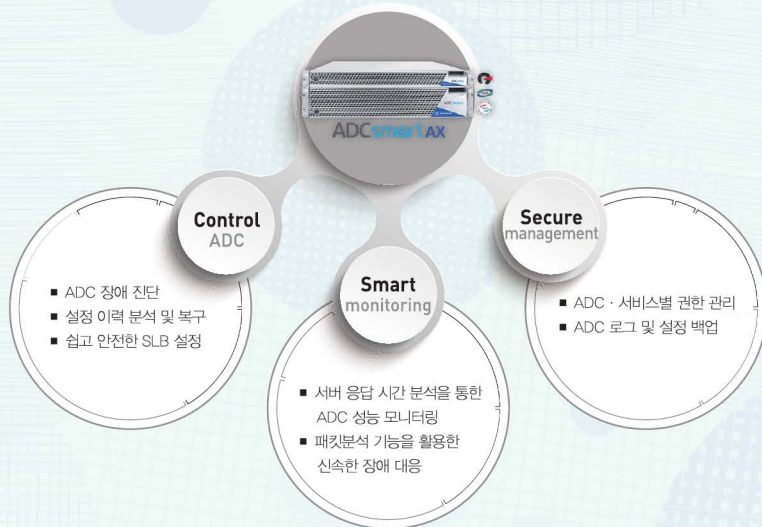
2014년	ADCsmart로 GS(Good Software) 인증 획득 신 소프트웨어 상품 연말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5년	제14회 대한민국 SW기업 경쟁력 대상에서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최우수상

(주)오픈베이스가 개발한 ADCsmart는 이 기종 다수의 ADC(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장비를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ADC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네트워크 장애 상황 시 패킷 유실 분석과 서비스 진단 등 다양한 기능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및 ADC 이슈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ADC 통합관리솔루션이다. L2-3수준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주는 NMS와는 달리 ADCsmart는 실제 사용 고객의 네트워크 및 ADC 관리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 장애를 분석할 수 있다.

ADCsmart는 국내 인터넷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외에도 삼성 SDS,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활용되며 ADC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ADC 솔루션이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하는 가상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주)오픈베이스는 ADCsmart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고심했다.

ADCsmart를 클라우드에 적용하면 고객들이 개별적으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 필요도 없어지며,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관리자의 부담도 덜게 된다. (주)오픈베이스와 고객사, 고객사와 (주)오픈베이스 양측 모두에서 더욱 효율적인 사업 활성화가 가능해지는 부분이었다.





(주)오픈베이스 연구소의 양승호 소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기 공급 방식으로 비유

할 수도 있죠. 전기 발명 초기에는 일반 가정집들도 개별 발전기를 가지고 직접 동력을 해야 했습니다. 장비를 갖추고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한국 전력공사라는 중앙기관에 이러한 단계를 위임하고 전기 자체만을 간편하게 공급받지 않습니까. ADCsmart도 유사한 방식으로 구동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클라우드가 (주)오픈베이스의 이전 사업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낯선 분야인 만큼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연구 개발 이전에 클라우드 사업에 대해 이해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이였다. 무턱대고 연이 없는 학계나 동종업계에 손을 내밀 수도 없는 막막한 와중에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가 송규현 (주)오픈베이스 대표의 눈에 들어왔다.

자문을 의뢰한 (주)오픈베이스에 TTA가 최초로 연결해 준 표준 자문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기술지원팀의 박종계 부장이였다. 박종계 부장은 우선 (주)오픈베이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사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관련 표준 상황을 포함한 최신 동향 등을 전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계 부장의 자문과 지원은 이론적인 면에 그치

㈜오픈베이스가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가상화 기술의 ADCsmart 제품 적용	·네트워크 장비의 클라우드화에 필요한 기술인 SDN과 NFV를 소개하여 ADCsmart 제품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차세대ADCsmart 제품의 시장 진출	·클라우드, SDN/NFV에 대한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하여 ADCsmart 제품 홍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사례 공유	·국내 웹 방화벽 솔루션 업체들의 SaaS형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 구조와 이들의 시장규모 정보 지원 ·국내 1위 CSP 사업자인 KT의 ucloud biz 소개

지 않았다. (주)오픈베이스로서는 가장 절실한 정보였던 국내 SDN/NFV 산업 현황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안내하여 오픈베이스의 차후 사업 방향에도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박종계 부장이 TTA 자문 과정을 통해 (주)오픈베이스에 제공한 여러 좋은 정보와 기회 중 특히 빛을 발했던 것은 필드에서 활약 중인 산업계로까지 자문의 범주를 확대했다는 점이였다. TTA는 박종계 부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netKTI의 김병규 부장과 (주)오픈베이스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KT의 사업 파트너인 (주)netKTI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전문업체로서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이슈와 이에 맞서는 추진 전략들을 (주)오픈베이스와 아낌없이 나누었다.

또한, TTA 자문은 자문 과정에서 도출해 낸 정보들을 활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주)오픈베이스의 현황과 방향을 분석, ADCsmart 솔루션의 클라우드 사업화 적합 여부를 분석해 주었다. 그 결과, (주)오픈베이스의 ADCsmart 제품의 자문 기술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정립할 수 있었다. 하나는 ‘네트워크 패러다임의 큰 축인 가상화 기술을 ADCsmart 제품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세대 ADCsmart 제품을 시장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였다.

기존의 ADCsmart 제품을 클라우드화 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독자적인 솔루션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연계하여 사업자의 응용 서비스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TTA 자문은 네트워크 장비의 클라우드화에 필요한 기술인 SDN과 NFV를 소개하여 ADCsmart 제품을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인 클라우드, SDN/NFV에 대한 시장 전망 분석을 통하여 ADCsmart 제품 홍보를 최적화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한 것은 물론이다. (주)오픈베이스는 이러한 TTA 표준 기술 자문을 통해 ADCsmart 제품의 차세대 네트워크 시장인 가상화에 최적화된 R&D 방향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 마케팅 방안을 통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SaaS 클라우드 서비스의 실사례를 공유하여 국내 웹 방화벽 솔루션 업체들의 SaaS형 클라우드 웹 방화벽 서비스 구조뿐 아니라 이들의 시장규모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TTA 자문은 (주)오픈베이스가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현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국내 1위 CSP 사업자인 KT의 ucloud biz에 대한 소개도 빠뜨리지 않았다. 다만 ADCsmart의 클라우드 사업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시장 규모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선행 연구가 필수적임을 덧붙였다. 현재 (주)오픈베이스는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파트너사와 함께 네트워크 보안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을 추진하고 있다. 채현주 (주)오픈베이스 수석은 TTA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표준 자문서비스가 없었다면 이러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문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식 이상입니다. TTA를 통해 (주)netKTI, (주)다보링크 등 유사 업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획득하여 차후 지속해서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세한 현황 파악은 클라우드화를 향한 경영진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했습니다. 사업이 보다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자문이 종료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차후 기회가 된다면 2차, 3차의 자문도 성사되었으면 합니다.”

(주)오픈베이스는 2016년 자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도 개발 중이며, 해당 솔루션과 ADC 통합관리솔루션인 ADCsmart를 쌍두마차로 클라우드 사업과 접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TTA**

[주요 용어 풀이]

- ADC: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데이터센터 내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로 주로 부하 분산이나 보안 강화 기능을 구현
- NMS: Network Monitoring System, 망 감시 시스템
- SDN: Software Defined Networking,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 NFV: Network Function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 CSP: Cloud Solution Provider,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자



기업명	(주)오픈베이스 
대표자	송규현
홈페이지	www.openbase.co.kr
설립일	1995년 9월 18일
주요사업	네트워크 솔루션, 보안 솔루션,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리빙관 4층